

불교의 세계화를 선도 할 '2013 불교박람회' 개최

불교박람회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되는 등 관심 폭발



《개막 테이프 커팅식》

불교박람회가 3월 7일 서울무역전시장 벤션센터(SETEC)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불교신문 사장 성직스님, 서울 불광사 회주 지홍스님 등 사부대중 1만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을 했다. 불교신문과 불광출판사 공동주관으로 열린 이번 불교박람회는 불교계 안팎의 높은 관심 속에 불교전통문화 산업체와 불교예술인, 불교 관련 업체와 불교 사회적 기업 등 150여 단체가 부스 220개를 마련하고 10일까지 나흘 동안 관람객을 맞았다.

개막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과 함께 '관(觀)무용단'의 불교장차무용 공연이 박람회의 분위기를 한층 북돋았다. 대회를 맡은 불교신문사 사장 성직스님은 개막식에서 "불교신문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언론으로 불교문화가 경제적 가치로 확장된 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이번 박람회를 준비했다"면서 "불교박람회는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불교와 전통이 만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한국문화를 대표하는 컨벤션산업으로 육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불광사 회주 지홍스님도 "올해 불교박람회는 더욱 풍성하고 깊이 있는 박람회로 마련된 만큼 불교의 정신을 담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막식에서는 불교문화사업단이 우수컨텐츠상, 불재대원기업이 우수업체상, 차공예협회와 장혁제이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각각 공로상을 받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불교박람회는 한국불교산업의 활성화와 불교문화를 이해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막식에 이어 성직스

님, 지홍스님 등과 함께 전시관을 둘러보며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박람회는 불교 및 전통문화 관련 업체들을 소개하는 일반 전시부스와 개별 주제로 더욱 깊이 있게 꾸며지는 특별 전시부스로 채워진 1관과 힐링을 주제로 한 강연 및 전통문화 공연 등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힐링 스테이지, 불교미술의 과거, 현재, 미래와 만나는 제1회 붓다아트페어를 만나볼 수 있는 2관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박람회는 크게 불교예술(붓다 아트 페어), 수행포교, 보시·봉사, 생활, 장례, 건축 등 6가지로 준비되었다. 수행포교 전시관에서는 불교 각 종단 및 사찰 소개, 불교단체, 불교 홈페이지, 불교 어플 등을 만나고, 보시·봉사에는 불교계 국제 NGO 단체와 사회복지기관, 명상심리치료단체가 참가해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현장을 소개하였다. 또 생활코너에서는 다양한 웰빙 음식, 다양한 식품, 차와 다기가 전시되었고, 직접 구매도 가능하였다.

장례는 불교계 상조업체 소개와 한지공예로 만든 수의를 비롯해 장례용품이 전시되었으며, 친환경 장례의식인 수목장에 대한 안내코너가 마련되어, 시민의 의식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건축분야 전시관도 마련돼 있다. 사찰의



조계종 국제사이트 접속 '급증'

1월에 3만 명 접속..., 다양한 콘텐츠 제공·개편 시급

한국불교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계종 국제사이트(www.koreanbuddhism.net)의 접속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사이트 접속자 수가 3만 명을 넘어서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2월에도 1만 명이상이 접속하는 등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월 접속자 수가 3,000건에서 6,000건 정도였던 지난해 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방문 클릭수도 1,000회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국제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접속한 국가는 중국이다. 미국, 캐나다, 우크라이나, 파나마,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이 상위 10개 국가에 포함됐다.

2005년 문을 연 조계종 국제사이트는 영어, 중국어, 일어판을 동시에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현재 조계종 영문 계

간지 로터스 랜턴(Lotus Lantern), 선어록, 수행 관련 질의응답, 기사 등 새로운 소식을 부지런히 신고 있다.

하지만 2010년도에 메인화면 편집 등을 바꾼 것을 제외하고는 개설 당시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 다량의 데이터베이스도 정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 빠르게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한국불교 세계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개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 등 통번역이 가능한 30여 명의 국제실무위원을 활용해 한국불교 소식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해줄 방침이며, 주요국가의 언어소통이 가능한 인재를 충분히 확보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글_사회부 국제팀

다양한 건축양식을 비교해 보며, 문화재 보수 과정을 알 수 있도록 비교전시 이뤄졌다. 특별관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였다. 특별관에는 사찰음식과 템플스테이 홍보관이 운영되고, 불교문화상품 공모전 수상작이 전시되었다. 특히 불교출판 특별관을 통해 불서의 저변확대를 도모하였다.

행사 첫날에는 개막식과 함께 불교 사회적 기업의 런칭쇼가 열렸다. 이어 8일에는 선무도 공연, 서울 행불선원 합창단 공연에 이은 행불선원장 월호스님 초청 법회, 퓨전 국악 공연 등이 이어지는 코리아 헤리티지 콘서트가 열렸다.

9일에는 금강선원장 헤거스님을 초청한 청소년 힐링 프로그램, 불교 팝페라 가수 'Vimutti(홍범석)' 공연, 수불스님 초청법회, 가수 아웃사이더의 아픔 꺼내놓기 토크쇼 '아파쇼'가 진행되었다. 행사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북 콘서트-소셜다이닝, 테라와다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하였고, 박람회 기간 내내 오전10시~10시30분에는 한국불교문화 영상이 상영되었다.

이번 박람회는 부처님오신날 연등회 및 나라나 축제와 함께 불교 대중화를 이끌 종단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했다. 그래서 종단에서도 앞으로 불교박람회의 위상을 강화시켜 불교문화의 진면목을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개막식에서 "내년부터는 불교신문, 불광출판사와 종단이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스님은 이날날 재차 전시장을 방문해 불교박람회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글_불교신문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로 세계인 매료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스님)은 지난 3월 6일부터 10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해 우수 홍보관을 선정하는 'Best Exhibitor Award'에서 아시아대양주 부문 1위를 차지했다.

독일 국제관광박람회 ITB(The International Tourism Bourse)는 세계 4대 관광박람회 가운데 하나로, 2008년에 처음으로 참가하여 최우수 부스 상을 받는데 이어, 올해로 연 5회째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올해에는 1만 1000여 개소에 이르는 홍보관 가운데 우수 홍보관 1위를 차지한 것은 템플스테이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과 함께 세계적인 위상을 반영하는 증거로 풀이된다. 불교문화사업단은 다양한 전통문화체험을 세계인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인경(印經) 체험, 연등 만들기, 차담 등을 진행했다. 특히 '참선'과 '차담'이라는 주제로 만들어진 다큐이 인형전은 스님과 템플스테이 참가자의 실제 모습을 재연하여 귀염을 독차지하며 호평을 받았다. 이와 함께 현지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템플스테이 설명회도 큰 호응을 얻으면서 유럽지역 참가자를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받았다.

홍민석 문화사업단 팀장은 "박람회 기간 내내 관람객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템플스테이 홍보물이 조기 소진되는 등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며 "한국전통문화 콘텐츠의 세계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무대가



됐다"고 말했다.

단장 정산스님은 "앞으로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등 1700년 한국불교 문화의 원형을 살린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개발해 외국인 관광객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3년 IBT 한국홍보관에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등 유관기관과 항공사, 호텔, 여행사 등 총 24개 업체가 참가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02-2031-2000

동국대학교 국제선센터 영어법회 4월 일정 안내

■ English Dharma Talks 영어 법회 (Saturday 2~4pm)

	Time	14:00~15:20	15:20~15:30	15:40~15:50	
Date	Dharma Teacher	Topic			Place
4. 6	Ven. Myongan (Malaysian)	Why Do You Live In This World	Question & Answer	Meditation	Dharma Hall
4.13	Ven. Myongan (Malaysian)	Zen-Mind Revolution	Question & Answer	Meditation	Dharma Hall
4.20	Ven. Bullim (Korean)	Who's who ? - To differentiate the Buddhist images In a temple	Question & Answer	Meditation	Dharma Hall
4.27	Ven. Chongan (Hungarian)	Meditation and Therapy	Question & Answer	Meditation	Dharma Hall

문의: 동국대 국제선센터 김영수 과장 02-2260-3891



BTN불교TV와 대한불교조계종 국제선센터와 공동으로 진행되는 틱낫한 스님 방한 기념 '플럼빌리지 법사단과 함께하는 WAKE UP! 데일리 템플스테이'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초보자도 가볍게 참가할 수 있으며 종교도 상관없습니다.

- 일 시 | 2013. 5. 14(화) AM9:30~ PM4:30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국제선센터 2층 대법당 International Seon(zen) Center
- 참가인원 | 선착순 300명
- 등록비 | 50,000원
- 준비물 | 참석하기 편한 복장, 개인물컵, 무릎담요
- 수행지도 | 틱낫한 스님의 플럼빌리지 법사단
- 문의·접수 | 대한불교조계종 국제선센터 02)2650-2242 www.seoncenter.or.kr
템플스테이메뉴에서 wake up 접수 메뉴 (회원가입없이 접수 가능합니다)

WAKE UP 프로그램안내
건강하고 자비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이들에게 깨달음의 기회를 마련한 데일리 템플스테이입니다. WAKE UP! 프로그램은 이미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반향을 일으키며, 일상생활에서 마음챙김을 하고, 사람들이 함께 명상하고 자기고민을 같이 나누며, 희망찬 새로운 사회를 꿈꾸면서 더불어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플럼빌리지 프로그램입니다.

국제선센터 WAKE UP 일정	The schedule for the WAKE UP!
09:30	접수등록 및 입실완료 (09:50) Begin to Arrive
10:00	좌선 Sitting Meditation followed by Sharing by monastics
12:00	걷기명상 Walking Meditation
13:00	점심 Lunch
14:15	이완 명상 Total Relaxation (you may like to bring a light blanket)
15:00	그룹토론 Group Sharing
16:15	마무리하며 Closing Circle
16:30	마침 End

* 상시 스케줄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화엄사, 한국·독일 고등학생 템플스테이 진행

제19교구본사인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스님)는 지난 2월 16일부터 17일까지 한국과 독일 학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불교문화체험과 인간성 회복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실시하였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2월 12일부터 23일간 광주 자동차설비공업고등학교와 독일 TRBK (Theoder-Rauter-Berufskolleg) 학교 간에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교류하는 제4차 한국-독일 국제교류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이 학생들에게 한국의 사찰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템플스테이를 마련했다. 템플스테이는 연등 만들기, 가야금 연주, 108염주 만들기, 발우공양, 스님과의 차담 등으로 진행됐다.

독일에서 온 알렉스 씨는 "이틀 동안 한국의 사찰인 화엄사에서 보고 체험한 모든 것이 참으로 소중한 것"이라며 "고국에 돌아가서도 한국불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화엄사 061-782-7600 / www.hwaeomsa.org



(사)하얀코끼리, 미얀마 보육원 후원

현지 찾아 교육물품 전달과 함께 점심 배식봉사 펼쳐

사단법인 하얀코끼리(이사장 영담스님) 미얀마자원봉사단 30명은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6박 7일간 미얀마를 찾아 현지 보육원을 방문해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배식, 페인트 봉사 등의 활동을 벌였다.

하얀코끼리의 이번 미얀마 자원봉사활동은 지난해 10월 26일 창립 이후 본격적인 국제개발NGO로서의 활동을 알리는 것으로 미얀마 양곤과 만달레이, 바고지역의 아동교육 및 보육시설을 지원 방문했다. 첫 번째 일정은 아웅산 수 치 여사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NLD)이 운영하는 양곤 'NLDBG 보육원' 방문. 양곤 NLD보육원은 미얀마 민족민주동맹(NLD)의 청년회원인 블러드 그룹(BG)이 운영 중인 시설로 지역 내 고아나 어려운 가정 어린이 2백여 명이 함께 생활하며 공부하는 곳이다.

사단법인 하얀코끼리는 이곳에 5천 달러의 후원금을 전달하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학용품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보육원장인 우빠 인 나 스님은 전달식에서 "이곳 어린이들은 학교에 갈 나이임에도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대부분 주워오던 아이들"이라며 "민주주의가 빨리 정착되어 아이들의 생활과 교육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 감사하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영담스님은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린이 여러분이 바로 미래의 미얀마를 이끌어갈 기둥이자 부처님"이라며 "오늘 전달한 물품들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작은 정성이 공부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전달식 후 식사가 서툰 아이들에게 스님들이 일일이 반찬을 잘게 썰어 접시에 담아 주며 어린이들의 점심 배식 봉사를 했다.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답례로 봉사단 노래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하얀코끼리 봉사단은 이어 2일 미얀마 중부의 고도 만달레이의 야다나 아웅 미에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갔다. 사찰에서 운영하는 이곳은 주지 메이따 운파 스님 등 3명의 스님과 교사들이 180여 명의 아이를 돌보고 있다. 앞서 찾은 양곤의 보육시설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은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생활하고 있다. 좁고 더운 숙소 등으로 인하여 미취학 어린이 상당수가 피부염 등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주지 메이따 운파 스님은 "우유가 없어 젓먹이를 키우는 일이 가장 힘들다"며 시설 운영상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이곳에 도움을 준 외국인들은 여러분이 처음"이라며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봉사단의 일원으로 참가한 학담스님은 "불자는 자비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남의 아픔을 덜어주고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한국도 전쟁 등 아픔을 겪은 나라다. 서로 아픔을 나누고 도우면 아름다운 나라가 된다"고 어린이들에게 당부했다.

사단법인 하얀코끼리는 만달레이 야

나 아웅 미에 보육원에 5천 달러의 지원금과 교육용품을 전달한 데 이어 지속적인 후원과 함께 시설 보완 등의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봉사단은 마지막 일정으로 양곤 인근의 바고에 위치한 바고 불교학교를 방문했다. 주지 아신 난 디야 스님이 운영하는 이 학교는 111명의 학생과 7명의 교사가 생활하며 공부하는 곳이다. 하얀코끼리는 이곳에 5천 달러의 후원금과 학용품, 식용유, 달걀, 마늘 등 식료품을 전달했으며 오래된 교사를 보수하고 아이들과 함께 페인트를 칠했다.

이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는 멩 리 군(15)은 "한국인들의 도움에 감사하다"며 "커서 의사가 되어 질병에 걸린 어린이들을 구제하고 싶다"고 말했다.



봉사단의 일원으로 참가한 영배스님은 "감회가 무량하다. 시작은 미미한 것 같지만, 목적은 숭고하다"며 "서로 돕는데 나라를 구분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하나의 공업종생으로서 고통받는 이를 도와주는 게 부처님 말씀이다. 세계일화다. 갈 수 있고 할 수 있다면 세계 어디든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사단법인 하얀코끼리는 한편 미얀마 방문 일정 중 수도 네피도에서 아웅산 수 치 여사를 만나 하얀코끼리의 사업을 소개하고 대담을 나누기도 했다.

하얀코끼리 이사장 영담스님은 미얀마 일정을 마무리한 뒤 가진 간담회에서 "만달레이 고아원에서 돌도 안 된 아이들을 키우는 주지 스님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며 "지속적인 지원과 시설 개보수를 올해 중점 사업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내년에는 스리랑카 또는 네팔 등 활동

반경을 넓혀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님은 이어 "현지 봉사활동과 더불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하얀코끼리의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한국에서 일하다 귀국하는 미얀마 청년들에게 직업교육과 창업 교육을 진행해 고국에 돌아가서도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계획도 세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단법인 하얀코끼리는 '함께 나누고 더불어 성장하며 세계일화(世界一花)를 실현합니다'를 모토로 하는 국제개발 NGO로 지난해 10월 창립했다. 제3세계 국가와 함께 자립지원, 교육지원, 보건의료, 문화교류 등 4대 사업을 설정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의 활발한 활동으로 세계일화로 꽃 피워지길 기대해 본다.

(사)하얀코끼리 후원문의 1899-1208

www.whiteelephant.or.kr

(사)위드아시아, 후원자와 함께 떠난 제2차 캄보디아 스터디투어

(사)위드아시아(이하 위드아시아)는 2012년 1월 5일부터 진행한 제1차 스터디투어에 이어 올해 2월23일부터 28일(4박 6일간)까지 위드아시아 후원자들과 함께 캄보디아로 제2차 스터디투어를 진행하였다.

이번 스터디투어 기간 동안 후원자들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위드아시아에서 운영 중인 썬레이끄랑 공부방과 크로웃 공부방, 송·이 공부방 등 3개의 어린이 공부방을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준비해간 간식도 나누어주고, 수업도 함께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지냈다. 또한, 2013년 3월부터 새로이 운영하는 스와이빠이 마을 백청강공부방과 찌빠여이 마을 두실공부방의 오픈식에 참석하여 면장과 100여 명의 마을 주민과 함께 새로운 어린이 공부방의 시작을 축하하기도 했다.

이번 스터디투어에 참가했던 후원자들은 "어린이 공부방에 방문했을 때, 현지 교사들의 열정과 아이들의 학구열, 집중도 및 높은 학업성취도에 놀랐고, 아이들이 이른 아침부터 모여 공부하는 모습이 예쁘고 기

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더 일찍 공부할 기회를 줄 수 없었던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든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현지인의 집에서 숙식한 경험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하며, "캄보디아 현지의 열악한 위생과 식수 등 주거환경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화장실, 우물, 위생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의 중요성을 절감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스터디투어에 참가했던 후원자들은 이번 경험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꾸준한 후원과 주변 지인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적극 알리고 후원을 독려할 것을 약속했다.

(사)위드아시아는 2013년 3월 현재, 캄보디아 최빈곤 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 공부방 5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 화장실 41개와 공동 우물 9개를 건립하였다. 또한, 어린이 공부방을 중심으로 마을의 아동 및 주민에게 기초 의약품들을 제공하고 있다.

후원문의 법인사무국 051-322-7902

서울사무국 02-3444-8007

www.withasia.kr



CA 산호세 정원사, 주지 돈오스님 취임법회 봉행

지난 3월 3일 정원사의 새로운 주지 돈오스님의 취임식이 있었다. 오클랜드 보리사 사부대중은 한인들의 포교를 위하여 교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산호세 정원사와 합병을 했다. 지난 1월 30일을 기점으로 보리사는 마지막 법회를 보고 한 달간 인수인계를 통해 많은 준비를 하였다.

정원사는 1987년에 윤고암 스님에 의해 창건되었으며, 1993년부터 20년간 정원사

주지 소임을 살았던 자연스님은 회주의 소임을 맡고, 미국에 온 지 6여 년 된 보리사 부주지 돈오스님이 정원사 주지를 맡았으며, 어린이부·청년부 담당스님과 사찰 총무 소임을 형전스님이 맡기로 했다.

미국이든 한국에서든 이미 세워진 두 사찰이 합병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사는 곳도 다르고 펴왔던 포교방식도 다르고, 오랫동안 그 사찰만의 방식으로 신

도가 형성되어 있어서, 중앙의 큰 사찰로 만들어 가기에는 많은 어려움 때문에 녹록하지 않은 않았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일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비구·비구니의 출가대중과 우바새·우바이의 재가대중이 화합의 모습을 보인 것이다.

우리들의 희망찬 앞날을 축하하듯 화창한 날, 정원사 주차장과 후원이 쉼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며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어린이 방에도 축하객이 가득 모였다. 제각기의 모습으로 새로운 주지 돈오스님의 취임을 축하하는 메시지가 사방에서 도착했다. 잡음이 하나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호응으로 두 사찰이 연합하게 된 것이다. 신문사의 취재진도 참석하였고, 평소 사찰 참배를 자주 하지 않았던 반가운 얼굴들도 보여 더없이 즐겁고 흥겨운 날이었다.

회주 자연스님의 이임사와 주지 돈오스님의 취임사는 신도들에게 아쉬움과 함께 새로운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꽃다발 속에 사부대중의 염원을 담아 전달하며, 꼭 이룰 수 있도록 새로운 도약을 약속했다. 주지스님은 취임사에서 "정원사를 한국의 조계사처럼 누구나 언제나 올 수 있는 사찰로 그리고 사찰에서 행복해 질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스님의 말에 모두 호응으로 감사와 다짐을 보냈다. 앞으로 정원사는 북가주에게 제일 열심히 하는 기도 도량으로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포교 도량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글 정원사 총무 형전스님

산호세 정원사 +1-408-745-0123



뉴욕 원각사, 법안 큰스님 6주기 추모법회

미주 한인 불교의 산증인 법안 큰스님 6주기 추모 법회가 3월 17일, 최초로 미 동부에 한국 불자들을 위한 부처님 도량 뉴욕 원각사를 일구고, 뉴욕지역의 불교발전을 위해 헌신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를 미국 주류사회에 알리는데 큰 공헌을 한 태허당(太虛堂) 법안(法眼) 큰스님의 기일을 맞아 뉴욕 원각사 큰법당에서 봉행했다.

이날 추모법회는 보스턴 문수사 회주 도범스님의 특별법문과 함께 주지 지광스님과 불자들이 정성껏 차려진 영단을 향하여 제를 올리며 큰스님의 뜻을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법안 큰스님은 미주 한국불교의 양대 산

맥이던 송산 큰스님과 함께 1974년 미 동부 최초의 한국사찰 뉴욕 원각사를 창건해 한국 불교 전파에 공헌했다.

또한, 법안 스님은 1986년 5월 불교소식지 '원각지'를 창간해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문화 사업을 시작하면서, 맨해튼에 있던 원각사를 현 위치인 뉴욕 업스테이트 샬리스 배리밀즈의 230에 이커 부지로 이전 미 동부 최대 도량의 기초를 닦았다. 동참한 모든 분이 지극한 마음으로 삼보(三寶)에 귀의하옵기를 바라며, 새봄을 맞아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지혜(智慧)와 자비광명(慈悲光明)이 늘 충만하기를 기원했다. 뉴욕 원각사 1+845-497-2229



뉴욕 청아사, 정월대보름 대법회

대한불교조계종 청아사주지 석담스님은 2월 24일 대법당에서 정월 대보름맞이 대법회를 열었다. 석담스님은 "내 인생에서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더라도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나에게 오는 힘든 일들이 내 인생을 빛나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모두 열심히 정진하여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깨달음의 삶을 가꾸자"고 설법했다. 이날 청아사 부설 선재한국학교 학생들은 부럼, 팥วง 등을 먹으며



정월 대보름의 유래에 대해 학습했다.

뉴욕 청아사+1-516-938-0563



GA 전등사, 베스트셀러 작가 헤민스님 강연

베스트셀러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의 작가 헤민스님이 3월 10일 릴번 소재 전등사주지 마야스님에서 특별강연을 했다. 승려이자 매사추세츠 소재 햄프셔대 종교학 교수인 그는 하버드대학에서 비교종교학 석사, 프린스턴대학에서 종교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자신의 저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베스트셀러가 된 후, 현재 활발한 방송·저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은 그의 이날 강연에는 청중 500여 명이 몰려들어 전등사 강당을 가득 채웠다. 특히 불교 신자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자들도 상당수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헤민스님은 이날 강연에서 '내 마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 행복한 순간'이라는 주제로 부부 관계, 자녀 관계 등 일상문제들에 대한 지혜를 소개했다. 그는 "마음이 급하거나 욕심이 많으면 마음의 문이 닫히고 판단이 흐려진다"며 "일상에서 여유를 갖고 자신을 돌아보자"고 권했다.

헤민스님은 한인들의 자녀 교육에 대해

서도 충고했다. 그는 "내가 한살이라도 먼저 살아봤으니 같은 실수를 시키지 않겠다는 심정은 이해한다. 하지만 자식들의 모든 문제를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교, 전공, 결혼 등 모든 것을 조종하려고 욕심을 부리면 아이들의 고민이나 진정한 바람은 바로 볼 수가 없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국에서 소수민족인 한인으로 살아가는 '이중 정체성'에 대해서도 강연했다. 그는 "시골에서 자란 흑인인데다 늘 과체중과 싸움하는 오프라 윈프리를 보며 사람들은 자신의 아픔을 공유하곤 한다"며 "미국에서 '비주류'로 여겨지는 한국 문화를 안다는 것은 오히려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스님은 3월 9일 늦은 시간 전등사에 도착하여 청소년들에게 짧게나마 정체성에 대해 영어로 법문하여, 우리말이 서툰 아이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GA 애틀랜타 전등사 +1-770-923-5375

뉴저지 보리사, 포트리에 부설로 보리문화원 개원

한인 사회에 기초교리와 다양한 문화강좌 마련

뉴저지 보리사 부설기관으로 설립된 보리문화원(BCC·The Bori Cultural Center)은 한국불교를 비롯해 한국문화를 한인뿐 아니라 타민족에게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3월 17일 문을 열었다.

대개 불교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원은 사찰 내에 두고 프로그램이 운영되지만, 보리문화원은 경내를 벗어나 한인 사회 속으로 뛰어 들었다. 보리문화원이 자리 잡은 곳은 뉴저지 한인 상가가 밀집해 있는 포트리 공영주차장 인근에 있는 상가 2층(2083 센터에 브뉴)이다. 이는 한인이나 타민족이 더욱 쉽게 문화원 문턱을 넘고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불교계에서 사찰 밖에 문화원이 설립된 것은 처음이다.

보리문화원장 원영스님은 “한국불교는 한국의 역사와 정신을 밑바탕으로 이뤄졌다”면서 “한국불교와 함께 다양한 모습의 한국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사찰 안으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널리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문화원은 불교를 가르치는 교육원이 아니다”면서 “불교에 관심이 있거나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리문화원은 크게 ▶ 불교 활동 ▶ 문화 활동 ▶ 특별활동 등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선 불교와 관련해서는 교리기초 강좌와 참선이 이뤄진다. 요즘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건강요가’와 다도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문화 프로그램은 한글학교, 노래교실, 서예, 한국무용 등이다.

특별활동은 방생 등 생명 살리기 캠페인

과 생활 강좌를 비롯해 봉사활동 등으로 이뤄진다. 문화원 공간을 회원이나 모임 장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빌려줄 계획이다. 강사는 원영·원충 스님과 외부강사로 이뤄진다.

입적한 성철 큰스님의 상좌인 원영스님은 90년대 초 버클리대학 방문교수로 와 있을 때 큰스님의 법을 미국에 널리 알리기로 마음먹고 ‘성철대종사 문도 사찰’을 표방한 보리사를 2002년 개원해 주지로 있다. 지난해 원충스님에게 소임을 넘겼다. 서울대 문리대를 졸업하고 동국대 불교대학원 석·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뉴욕불교사원연합회장 등을 맡아 활동했다.

원충스님 또한 ‘성철선사상연구회’ 연합실장 등으로 있으면서 성철 큰스님 사상을 알리는데 앞장서왔다. 지난해 보리사 주지를 맡으면서 원영스님과 손잡고 보리문화원을 개원하는데 힘을 쓴 그는 중국 선사상 등을 연구해 일본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다. 서울 삼정사 주지, 길상사 수련원장·선원장 등을 역임했다.

원충스님은 개원식에서 “누구나 쉽게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수강료를 저렴하게 책정했다”면서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운영비 일부는 신도들이 내는 후원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날 도범(보스턴 문수사 주지)·지광(원각사 주지)스님과 김정광 미주불교문화원장, 보리사 신도 등이 참석해 개원을 축하했다. 개원식 후에는 다도 시연이 열렸다.

뉴저지 보리사 +1-201-833-0633
출처: 뉴욕 중앙일보



오렌지카운티 정혜사, 휘광스님 초청법회 봉행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정혜사(주지 석타스님)에서는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로 봄맞이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3월 3일(일) 뉴욕 불광선원 주지인 휘광스님을 초청하여 300여 명의 신도가 동참한 가운데 생활에 필요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휘광스님은 20대 초에 출가하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남달리 부지런한 스님은 1991년에 한국불교 세계화에 뜻을 두고 미국으로 건너와 1996년에 불광선원을 창건했다.

스님은 특히 매주 일요일마다 어린이·중고등부·청년부·일반신도 등 계층별로 법회를 봄으로써 눈높이를 맞춰 포교하고 있다. 한편, 현지인 스님들

과 함께 거주하면서 현지인을 대상으로 참선법회를 개최하는 등 현지인 포교에도 진력하고 있으며, 유학 온 후배 스님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후학을 양성하는데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다. 베스트셀러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의 저자인 혜민스님의 스승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미동부해외특별교구 교구장을 맡아 동부 소속 사찰과의 유대 강화에 힘을 쏟고 있으며, 바쁜 일과 중에서도 열심히 미주지역 포교 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이날 휘광스님의 특별법회에 참가한 불자들은 “생활 속에서 필요로 하는 법문을 해 주셔서 이해하기가 쉽고, 실천할 수 있는 가르침을 주었다”며 흐뭇해 하였다. OC 정혜사 +1-714-995-3650

부석사 금동보살좌상 관련 한·일 승려 회담 실패

도쿄, 일본 - 충청남도 서산 부석사 스님들은 金銅觀音菩薩坐像(Gilt-bronze Seated Avalokitesvara Bodhisattva)문제를 논의하고자 일본 쓰시마섬 관음사를 방문하였으나 관음사 측은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현지 언론 등의 보도를 따르면, 부석사 원우스님과 서광사 도신스님, 김원웅 전 의원 등 일행은 논의를 통해 원만하게 처리하고 싶으며 관음사를 방문하였으나 관음사 스님들은 면담을 거절하고 일본 언론을 통해 “불상을 신속히 반환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 정부도 수차례 불상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요시히데 스가 관광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일 양국 간 조약에 따라 불상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관음사에서 불상이 도난당해 한국으로 들어간 만큼 문화재 조약에 따라 반환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불상은 서산 부석사에서 1330년대



조성되었으나 일본으로 약탈당한 이후 관음사에 봉안되어 있다가 2012년 10월 절도범에 의해 한국으로 반입되었다. 한국 정부가 절도범을 붙잡고 불상을 압수하면서 일본은 반환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2월 한국법원은 관음사가 불상을 정당하게 취득한 사실이 소송을 통해 확정될 때까지 일본으로의 반환 금지 가처분을 내렸다. 한편, ‘서산부석사관세음보살좌상 제자리봉안위원회’가 3월 21일 출범하였다. 사진 출처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 좌상 제자리 봉안위원회

시카고 불타사, 1100일 기도 회향 봉행

지난 2월 17일(일) 시카고 불타사(주지 현성스님)는 신도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1100일 기도 회향 및 1200일 저녁기도 입재식을 갖고 주지스님의 특별법문을 들었다. 미국에서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쉽 없이 수행하기란 쉽지 않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한 신도들에게 중간 점검을 하는 계기로 불자의 마음가짐과 기도를 통해 자신의 업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법문을 했다. 아래의 내용은 스님의 법문을 간추려왔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결점이 무엇인가?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입으로 맞보는 것 등등 우리의 생활을 보면



거의 다 좋아하는 것만 찾아다니고, 싫어하는 것은 버리려고 한다. 좋고 나쁨을 따라가는 이런 우리의 생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즉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구별하기에 행과 불행도 그 안에서 생기게 되는 것이다. 모르는 상황에서 좋다 싫다 분별하기가 문제점이 생긴다.

그래서 불교에서 보는 관점은 내 눈 밖에 있는 것들을 알려면 자기 마음을 먼저 알아라. 모든 것을 방하착하라 즉 내려놓으라고 한다. 내 마음을 알려면 먼저 나는 어떤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알아야 한다. 업의 나를 알기 위해 무엇을 하는가? 독경, 사경, 간경을 하면 해안과 지견이 생기면서 업이 하나하나 제거된다. 불교를 공부하는 것이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함이다. 즉 기도 불이면 기도를 통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게 뭘지 인지하는 동시에 업이 없어진다. 이렇듯 열심히 기도하여 나의 업을 하나하나 소멸하여 가면 궁극에는 해탈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시카고 불타사 +1-773-286-1551



대만 불광산사, 제9대 주지 진산식 봉행

지난 3월 12일 '인간불교(人間佛敎)' 포교 이념을 실천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대만 불광산사에서는 제9대 주지 심보(心保)스님의 진산식 및 임제종(臨濟宗) 제49대 전법대전(傳法大典)을 봉행하였다.

불광산사는 성운(星雲) 큰스님에 의해 1967년에 창립되었다. 성운 큰스님은 초대~제3대 주지를 역임한 뒤 총림의 제도 정립을 위해 1985년 자리에서 물러나 제자인 심평(心平)스님에게 주지를 맡겼다. 심평스님은 제4~5대 주지를 역임한 후 입적하였고, 그 후 제6대 주지 심정(心定)스님, 제7~8대 주지 심배(心培)스님을 거쳐 현재 제9대 심보스님에 이르렀다.

불광산사의 주지 임기는 4년이며 선거를 통해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주지의 선출은 여러 단계를 거친다. 우선 일정 법계에 오른 스님들이 투표를 통해 9명의 종무위원을 먼저 선출한다. 비구와 비구니 스님들로 구성된 종무위원회(宗務委員會)는 불광산사의 최고 결핵 기관으로서 조계종의 중앙총회와 종무원의 역할을 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선출된 종무위원들 사이에 다시 위원회 주석을 뽑는데 위원회 주석(主席)은 바로 주지스님이다. 이 과정에서 비구와 비구니 스님의 선거/피선거권이 동등하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이번에 5명의 부주지가 처음 선출되었고, 그중에 뉴질랜드 출신 해봉(海峰)스님도 포함된다는 것은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이날 진산식에서 제6대 주지인 심정스님이 성운 큰스님을 대신해서 <불광산법권(法卷)>을 낭독하였고 신임 주지 심보스님은 전 주지인 심배스님으로부터 불광산



▼ (좌) 불광산사 신임 주지 진산식 현장 (우) '법자'들이 성운 큰스님으로부터 법권, 염주와 가사를 받고 있다.

사의 제도를 상징하는 '불광정규(일명 徒衆手冊)', 규칙을 상징하는 향판(香板)과 중생 제도를 상징하는 석장(錫杖)을 넘겨받았다. 성운 큰스님은 법문을 통해 불광산사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잊지 말고 반드시 사부대중의 힘을 모아서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신임 주지에게 당부하였다. 또한, 큰스님은 과거에 주지 자리를 자신의 제자가 아닌 자운(素雲) 큰스님에게 물려주려고 했었다고 밝혔다. 불광산사가 개방적인 도량이니 만큼 한 종파, 한 문중에 얽매어서는 안 되고 유능한 사람이라면 지역과 출신 종단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불광산사의 주지를 맡을 수 있다고 성운 큰스님은 거듭 강조하였다.

진산식에 앞서 임제종 제49대 제자, 불광산사 제2대 법자(法子)의 전법 의식이 봉행되었다. 불광산사에서 출가한 한국인 해호(海豪)스님을 포함한 총 72명의 법자들은 성운 큰스님으로부터 염주, 법권(法卷)과 가사를 받은 후 임제종의 종풍(宗風)을 받들고 불광산사의 '인간불교' 정신으로 수행과 포교에 끊임없이 정진하겠다고 대중 앞에서 서원하였다. 글_ 소영남

학습탐방 차 방문한 스리랑카 스님 인도서 공격받아

첸나이, 인도 - 스리랑카 출신 불교 승려 그나나로카 테레오(46세)는 18명의 학생과 함께 학술 연구차 방문한 탄자부르(Thanjavur)에서 스리랑카를 거부하는 추종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경찰이 스님을 안전하게 구조하였고 다른 학생들도 즉시 경찰서로 대피하였다. 학생들과 스리랑카 스님은 즉시 탄자부르를 떠났다. 이들은 경찰의 엄호 아래 토요일 티리치(Tiruchy) 공항으로 이송되었다. 오후 2시경 삼엄한 경비 아래 G코너에 들어선 차로 스님이 승차하려 할 때 MDMK(Marumalarchi Dravida Munnetra Kazhagam)단원들이 스님에게 돌팔매질했다.

그나나로카 테레오 스님은 뉴델리의 인도 고고학 학회에서 고고학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있어 지난 18개월 동안 인도 여러 지역을 탐방 학습을 해오고 있었다. 스님은 토요일 탄자부르의 큰 사원에 도착하여 사찰의 고고학적 문양을 연구하고 있었다.

타밀지역 복장을 한 타밀 데시아 포투 우다마이 카타치(Tamil Desiya Pothu Udamai Katchi) 지역의 주동자 라젠드란과 나암 타밀 카타치(Naam Tamilar Katchi)지역의 주동자 나알라두라이아가 갑자기 스님을 폭행하였다. 안부 경찰 관리관이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주동자와 관련자 9명을 체포하였다.

첸나이 주재 스리랑카 부 고등 판무관과 뉴델리 주재 고등 판무관 사무소는 그나나로카 테레오 스님을 신속히 뉴델리로 안전하게 돌려보냈다. 스님은 뉴델리에서 계속 학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 사건은 인도 정부 최고위층과 타밀나두 지방정부의 즉각적인 주의 조치를 받았다. 경찰은 아리아망갈람(Ariyamangalam) 지역에 이 사건을 등록하고 사건과 관련된 MDMK(Marumalarchi Dravida Munnetra Kazhagam)과 NTK(Naam Tamilar Katchi)의 관련자 5명을 체포하였다.

Asiantribune.com [2013. 3.17]

팔에 부처님 문신한 영국 관광객 입국 거부

콜롬보, 스리랑카 - 스리랑카 이민 당국은 팔에 부처님 頭像을 문신한 영국 관광객 입국을 불허 하였다. 지역신문 랑카데파 싱하레세(Lankadeepa Sinhalese)는 안토니 랫클리프(42세)가 부처님의 품위를 손상하는 문신으로 스리랑카 입국이 금지됐다고 전했다.

관광객은 문신에 대한 이민국 질문에 굉장히 무례하게 불교를 폄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콜롬보 반다라나이케(Bandaranaike) 국제공항 이민 당국은 무례한 행동으로 지역주민과 마찰이 번질 것을 우려하고 신변 안전을 위해 입국을 불허 한다고 하였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민국 당직자는 입국 후 不敬한 행동으로 신변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한다. 공항 당국은 이 영국 관광객의 입국 거부 결정 이면에 있는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BBC는 "런던에서 말레이시아로 이동 중이고 스리랑카를 경유하고 있어 현지 주민에게 무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여러 해 동안 불교를 믿어 왔고 문신으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해 부처님을 문신으로 새겼다. 단순히 가벼운 마음으로 문신한 것은 아니다"고 관광객의 말을 전했다.



미 중앙정보국(CIA)에 의하면, 스리랑카는 인구의 70%가 상좌부 불교(上座部 Theravada) 신도국가이며 부처님 이미지 훼손을 금지시하여 외국인들에게도 현지 범례와 종교적 분위기를 따라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작년 8월 佛像에 키스하는 포즈를 취한 프랑스인에게 6개월 강제노역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 2010년 미국 R&B 가수 아론이 佛像 주위에서 반라의 여인들이 춤추는 뮤직비디오 발표 이후 스리랑카 입국을 허락하지 않기도 하였다.

한해 10만 명의 영국인들이 스리랑카를 방문하며 전체 관광객의 10%를 영국인이 차지한다고 BBC는 전했다.

IB TIMES [2013.3.17]

구리 광산 개발, 불교승려 반대 의견 피력

양곤, 미얀마 - 공식적인 렛파다웅타웅(Letpadaungtaung) 구리광산의 개발 계획에 반대한 불교 승려들이 부상을 당하였다. 승려들은 정부 당국에 이번 사태의 책임자 조사를 요청하였다.

태국에서 치료를 받고 귀국한 아신 페잇자나 스님은 "우리는 불교 유적 이전 계획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스님들은 개발 프로젝트에 대항할 것입니다. 스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레디 사야도(Ledi Sayadawgyi)의 역사적 유적을 지키는데 함께 해야 합니다"고 말했다.

최종 보고서에는 불교 유물을 손상 없이 새로운 장소로 이전한 후 광산 개발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사가잉(Sagaing) 지역의 티다구 아위다나 병원에서 화상 치

료를 받고 있는 아신 쌍다우바다는 "현재 위치의 탐을 이전하고 새롭게 들어선 광산을 불심이 강한 미얀마 주민이 받아들일까요?"라고 말하며, 유적을 옮기고 부상당한 스님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치 않는 현 상태에 대하여 큰 유감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부상당한 스님을 보호하는 재단의 아신 윈알아이 스님은 보고서 내용엔 반대하고 있으나 몇몇 내용엔 찬성한다고 말하였다. 프로젝트의 진행 여부는 지역 주민이 결정할 중요 사안이며, 스님들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것이지만, 불교 유적지를 손상시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대하고, 스님들을 폭행한 책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ElevenMyanmar.com [2013.3.14]



아프가니스탄에 부는 고대불교 도시 보호 물결

아이나크, 아프가니스탄 - 메스 아이나크 (Mes Aynak)의 사방 15평방 마일 지역 내에 월드뱅크(World Bank)의 엄청난 자금 유입과 거대광산 개발 지연계획은 확실한 고고학의 승리이다. 각국의 고고학자들과 550여 명의 발굴단은 중국, 인도 그리고 지중해를 연결하는 고대 실크로드 내에서의 아프가니스탄 역할의 중요성을 두고 활발한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다.

고대 불교도시는 고도 8,200피트에 대어섯 개의 산 중 사원, 상업 지역, 광산 등이 연결된 도시이다. 지난 5세기에서 8세기까지 불교적인 종교생활, 광산, 무역이 성행했던 지역으로 추산된다.

문화보호 차원과 절박한 아프가니스탄의 경제상황 타계를 위한 자구책 마련을 위해 국제 사회의 공조가 이루어졌다. 아프가니스탄 전체 경제의 5배에 달하는 1천억 달러 규모의 구리 광산이 이곳에 있다. 외국의 지원으로 정부와 군이 유지되는 경제 상황 아래 최대의 민간 사업 부분은 국제구호팀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과 컨소시엄을 통해 2007년 구리 광산을 30억 불에 임대하였다.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의 민간투자 협상으로, 당국은 광산 개발이 중요한 경제성장 원동력이 될 것이며, 연 수백만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여 수천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대규모의 광산 채굴 때문에 잘 보존되었던 프레스코 佛像 벽화를 포함한 천여 점의 조각품들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한다. 탈레반에 의해 2001년 아프가니스탄 역사상 최대의 문화적 재난으로 기억된 바미안(Bamiyan) 大佛이 파괴되었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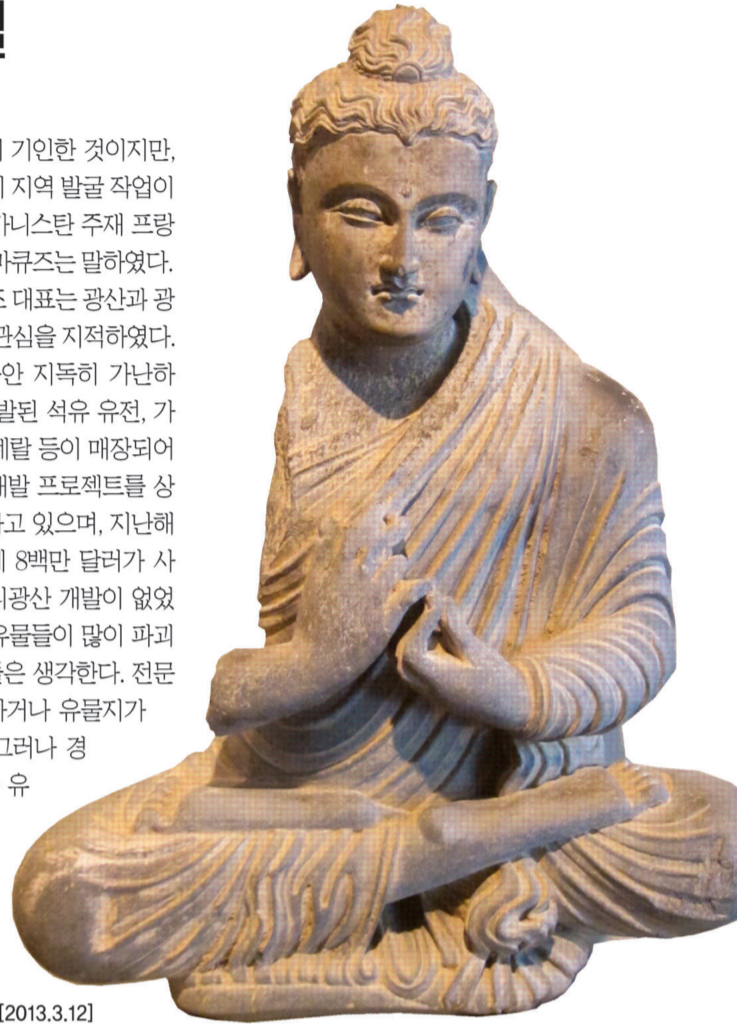
그러나 프랑스와 아프가니스탄 고고학자들은 2009년 탄광개발부처와 모종의 비공개 거래를 성사시켰다. 광산이 개발되기 전 “유적지 救助” 유예기간 동안 주요 유물을 복원하고 관련 자료를 최대한 문서화하는 것이었다. 지난 12월에 유예기간이 끝났으나 올 6월이 지나야 기초 작업이 마무리되고, 광산 주변에 흩어져 있는 사원의 복구는 몇 해에 걸쳐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모사디크 카리리 문화부 차관이 전했다.

고고학자들은 최소 2016년까지 복원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믿고 있다. 유예기간 연장은 광산개발에 필요한 자체 시설 설립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데 기인한 것이지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지역 발굴 작업이 계속될 수 있다고 아프가니스탄 주재 프랑스 고고학회 회장 필립 마쿠즈는 말하였다.

이 같은 이유로 마쿠즈 대표는 광산과 광산 개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지적하였다. 아프가니스탄은 오랫동안 지독히 가난하였다. 그러나 아직 미개발된 석유 유전, 가스, 1조 달러 가치의 미네랄 등이 매장되어 있다. 월드뱅크는 광산개발 프로젝트를 상당히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고고학 보전 프로젝트에 8백만 달러가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구리광산 개발이 없었어도 메스 아이나크의 유물들이 많이 파괴되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전문 딜러들의 손에 도난당하거나 유물지가 약탈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 성장 희망이 있는 한 유적지에 관한 연구 작업과 유물의 보호 작업은 계속될 것이다.

제리 프라이스
McClatchy Newspapers [2013.3.12]



예일대학, 새로운 방향의 불교 프로그램 指針

뉴욕, 미국 - 예일대학교는 부르스 블레어 法師이 이끌던 교내 비영리 불교 공동체 인디고 불루와 9년 동안 함께 한 인연을 끊은 지 4개월 만에 2명의 새로운 法師과 함께 새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종교관 프로그램 담당자는 이번 학기부터 격주로 법문, 토론, 참선수행을 시작할 예정이며, 진행 중인 불교 프로그램은 타 대학이나 교내 타 종교 활동에 버금간다고 전했다.



대학 종교담당자 샤론 쿠글러는 “새로 소개된 불교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 현지 불교 공동체와의 협력으로 새로운 프로그램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종교 사무국은 지난가을, 인디고 불루와 관계를 끊은 이후 기존 불교 공동체 회원들을 위하여 신중히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었다고 한다. 국가 불교 공동체의 조언을 받아 대학 교육에 필요한 여러 형태의 불교 의식을 거행할 수 있는 法師로 류힐과 듀튼을 선정하였다. 하버드대학에서 종교학을 수료한 두 법사는 불교 연구 학위를 갖고 있고, 불교를 가르친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

듀튼은 “특별히 정한 목표는 없지만, 예일대학의 佛子 또는 非佛者 학생, 예일대학의 학생이 아닌 사람도 환영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투영되는지 진지한 논의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뜻하고 매력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고

말하며, 불교에 관심 있는 학생들, 불교 수행을 통해 스트레스와 외부자극을 조절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수행 장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불교 가르침을 실생활에 유용하게 적용하도록 진행하고 싶다고 했다.

지난 2월 18일 두 번째 설법에서는 학생들과 지역 회원들로 가득 찼으며, 說法에 참여했던 학생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고 전했다. 학생들은 허심탄회하게 개인의 경험을 말하며 진지한 토론을 이어갔다고 덧붙였다.

지역 불교 종교지도자 협의회 의장이며 인디고 불루 기존 참석자인 흥팜은 새로운 프로그램은 선불교를 중심으로 하므로 블레어가 진행했던 다양한 범불교적인(pan-Buddhism) 프로그램과는 차별성을 두고 있다고 말하며, 선불교 중심의 불교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현재 두 그룹으로 양분되어, 기존의 인디고 불루 참석자들은 블레어의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있다. 이 두 프로그램이 각각 독립적으로 현 불교공동체를 이끌고 있다며 하버드 불교 공동체 전 공동 의장을 역임한 류힐은 전했다.

Yale Daily News [2013. 3. 1]

오프라 스토어 불교 명상 센터로 전환

시카고, 미국 - 삼발라 명상센터(Shambhala Meditation Center)가 오프라 윈프리 쇼 스토어를 인수할 예정이다. 지나 카루소 센터 운영위원장은 현재 7331 N. 셔리던가에 위치한 삼발라 명상센터를 올여름 전까지 31 N. 카펜터가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이 불교 단체는 1995년부터 로저파크에서 지역 모임 참가자들이 명상 수업과 함께 열린 명상 수행을 진행하고 있다.

명상센터는 오프라 윈프리 쇼 스토어가 기존에 사용했던 큰방을 50~60여 명이 사용할 명상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 사회 서비스와 함께 요가를 비롯한 꽃꽂이 등 다양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카루소 위원장은 전했다.

“이곳은 사람들이 집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 다른 곳에선 경험

할 수 없는 창조적인 것들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라고 하였다. 삼발라 명상 역시 하포 스튜디오와 함께 운영되며 명상센터에서 한 구역 떨어진 곳에 30여 대의 주차 공간을 마련하였다.

“적당한 장소를 마련하여 너무 행복합니다. 주변을 살펴보고 이곳을 너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토마스 골자 부운영위원장은 말했다.

명상센터는 창고로 사용됐던 지하층을 수업과 지역주민 활동장소로 변경할 예정이다. 오프라 윈프리 스토어는 쇼 기념품, 유아용품, 책, 잡지 및 토크쇼의 호스트가 사용했던 의류 등을 판매하던 “오프라의 옷장” 등이 있던 장소였다. 스토어는 지난 2011년 6월에 문을 닫았다.

클레오 릴레이 DNAinfo [2013.3.14]



▶ 6~7면 번역은 현재 국제포교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수현님이 맡아주었습니다.

‘진오스님 독일에서 700km 마라톤에 성공하다’

꿈을 이루는 사람들의 대표 진오스님은 3월 19일~ 4월 4일 일정으로 700km 마라톤에 도전하기 위해 지난 3월 19일 독일로 출국했다. 이번 ‘독일 700km 마라톤’은 한-독 수교 130주년과 독일 파견 광부 50주년을 맞아 양국 간의 우호 증진과 한국에 와 있는 이주여성, 이주노동자 쉼터 확충을 위해 1km당 1유로씩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서다.

독일에서 첫날은 비를 맞으며 40km를 달려야 했고, 다음날부터는 겨울이 채 가시지 않은 유럽의 차갑고 거센 바람이 스님의 발길을 무겁게 했다. 낮은 환경 속 길거리에서 빵으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700km의 여정은 체력의 한계를 넘어 원력으로 한발 한발 베를린으로 향해 달렸다. 스님은 현지의 역사와 문화를 느끼고 재독 교민들과 교류뿐만 아니라 태극기를 들고 달리는 도중 만나는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민간외교의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진오스님은 “1963년 젊은 청년과 간호 인력 여성 수천 명이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독일로 갔는데 이제 그들은 70대가 되었다.”며 “50년이 지난 지금 그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4월1일 드디어 베를린 통일 상징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 도착해서 ‘독일 700km 마라톤’을 원만히 회향했다. 이번 마라톤을 통하여 한국에 와 있는 이주민들에 대한 인식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진오스님은 작년 1월 베트남 농촌학교



에 108개 화장실을 지어주기 위해 베트남 탕화성과 타이응웬성에서 직접 500km 마라톤을 하였으며, 또한 4대강 1,000km를 완주하는 등 이주민을 돕기 위해 항상 힘써 왔다.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2000년부터 구미 지역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상담센터와 외국인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가정폭력피해 외국인 보호시설, 2010년 북한 이탈 무연고 청소년 그룹 활동을 운영해 오고 있다.

구미 꿈이루는사람들 054-458-0755

김포마하이주민센터 이주민 힐링 법회와 무료진료

3월31일(일) 김포 이주민 법당 보타사에서 혜달스님(방글라데시 출신)을 모시고 방글라데시 이주민을 위한 힐링 법회를 봉행했다. 한국에서 낯설고 힘든 생활 속에 모국어 법회는 지친 마음과 향수병을 달래주는 단비와도 같다. 법회 후 방글라데시 음식으로 준비한 점심 공양을 함께 먹으며, 오랜만에 만나는 동료와 실컷 수다도 떨고 고향 소식과 한국생활의 정보를 나누는 장이 되기도 한다. 보타사 힐링 법회는 매주 일요일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오후에는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석지관)에서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난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내과, 외과, 한방, 치과, 약국과 발마사지까지 제공하는 무료진료를 했다. 이번 봉사는 불교 의료봉사단 ‘반갑다 연우야’, ‘전국병원불자연합회’, ‘한의사불자연합회’ 소속 의사·각 공동체 통역 봉사자와 청소년 등 자원봉사자 25명이 참여하였다.

두 자녀와 함께 치료를 받은 몽근의(몽골)씨는 “두 자녀에 대한 양육과 생계 문제 때문에 아파도 병원 한번 가기 어려웠다고 하며, 일요일에 찾아와 무료검진을 해주니 조금은 안심이 된다. 특히 발마사지는 식당일로 지친 몸을 회복시켜줘 아주 좋았다”고 말했다. 통역 자원봉사자로 안내와 진료 통



역봉사를 담당한 상지와(스리랑카)부부는 “타국에 와서 한국 의료진들의 봉사로 스리랑카 동료가 무료 진료를 받게 되어 기쁘고, 우리 부부 또한 스리랑카 동료에게 봉사할 기회가 되어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포마하이주민센터는 이주민 힐링 법회와 무료 진료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포마하이주민지원센터 031-985-0654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사업 및 4월 행사 안내

1 이주민쉼터 및 프로그램지원 공모사업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와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는 이주민들을 위해 백방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의 프로그램과 시설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1,000만원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의 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꿈이루는사람들 : 이주노동자를 위한 취사공간 환경조성 (310만원)
- 광주외국인복지센터 : 행복바라밀 Healing Story (300만원)
- 대구마하이주민센터 : 이주민 자원 활동가 양성을 위한 ‘함께하는 이웃’ 아카데미개설 (240만원)
- 한국YBA : 이주민센터 노후 주방시설 교체 (150만원)

2 이주민법회 지원

출신국 이주민의 한국생활 지원과 불교 포교를 위해 법회를 봉행하고 있는 외국인 법당 8곳을 선정하여 이주민법회 활성화를 위하여 총 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 선정된 이주민법회 - 광주지역 스리랑카이주민 법회
- 김포 외국인주민 ‘보타사 힐링법회’
- 캄보디아 법회
- 몽골이주민 법회
- 미얀마 이주민법회
- 구미이주노동자법회
- 태국이주민법회
- 용수사 네팔이주민법회

3 새봄맞이 다양한 행사 개최

새봄을 맞아 동아시아 여러 국가의 새해맞이 축제가 경기도 일대에서 열립니다.

- 캄보디아 쫄치남 : 4월 7일 군포시민체육광장, 4월 14일 의정부
- 태국 송끄란 축제 : 4월 14일, 의정부
- 방글라데시 줌머족 보이사비축제 : 4월 14일, 김포 통진드레문화센터
- 미얀마 띠잔축제 : 4월 21일, 부천종합운동장
- 남산걷기대회 (불교방송) : 4월 28일, 동국대와 남산 일대 (이주민도 참가 예정)

마주협 사무국 02-720-7095